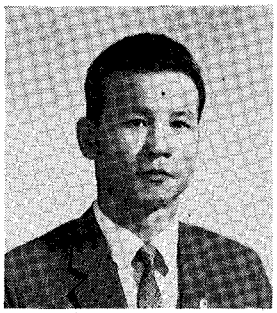
우리 모두 축산기반 조성에 매진하자



진 교 북
본회이사. 북일농장

육류가 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생산과 공급이 요구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쇠고기나 우유의 생산기반이 후진성을 탈피 하지못한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즉 우리의 현실은 낙농육우 산업의 무진장한 발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의 발전과 기술의 향상보다는 축산선진국에서의 수입정책이 활발하여 부족물량을 충당시키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는 현실상황에서 축산인은 이중고에 시달리며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문제점은 첫째로 환경이다. 즉 축산의 기반조성이 안되있는 것이요. 둘째는 축산배설물의 처리시설등이다. 셋째로는 인력부족등 이러한 문제점외에도 더욱더 우리 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각종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정책이다. 이 것은 자국의 생산을 즉 "자급도"를 몇 %로 할 것이냐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목표의 설정도 없이 무작정 수입만 일삼는다면 우리나라의 생산기반은 어느쪽으로 가야하며 자국의 생산이 전멸되었을 때를 염려해 보았는가. 또한 농촌의 인력은 일은 안하고 호강을 독차지 해야하는 못된 습성이 만연하고 있다. 땀흘려 일하는 것을 가장 보람으로 알던 우리 농촌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억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다. 매양 일 않고 호강하는 생활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 댓가를 보상해야 할 것이며 보상을 못하면 응분에 그 무엇이든 책임져야 할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보람에 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당연한 인식회복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협회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정책당국이나 관계요로나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밖으로 우리 축산업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호소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운동에 무임승차 하는 사람이 없도록 회원확장에 주력하고 빈틈없는 단결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발전적인 정책 건의를 해야하겠다.

축산배설물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사회에 인식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귀중한 자원으로 취급되어 훌륭하게 활용되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축산배설물을 발효시켜서 산성화된 농지에 퇴비로 이용하면 지력이 향상되고 농지가 비옥해지는 극히 간단한 방법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정책당국이나 우리나라 전 농촌이 흙에 대한 엄숙

한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겸허히 받아드릴 것을 촉구한다.

축산기반에 대한 문제는 조사료 생산기반인 농지문제다. 이 문제는 적어도 국가가 축산지대를 선정하여 조사료를 자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원초적인 문제해결이 안되어서 곡물사료(농후사료) 조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보세가공 형태의 축산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다음은 시설인데 축사와 기타 부속시설 방목시설등인데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이와같은 시설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다음은 장비 및 농기구 등인데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성력화 방향으로 구비되어야 하고 농기구등은 간편하고 실용성있게 우리농촌 실정에 맞게 개발되어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덮어놓고 외국산 내지는 이를 모방하여 제작되어서 우리나라 여건과는 거리가 먼 따위의 제작 보급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낙농육우산업에 대한 정책은 한마디로 정책의 부재였다.

축산정책 이야말로 오늘날 세계화의 경쟁을 전재로 하여 이 산업의 목표로 하고 모든 정책이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몇가지 조건은 축산 선진국과는 비교가 안되는 열악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방향설정도 없이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이어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80년 중반에 무계획한 축산물 수입으로 1985년도에 농촌 역사의 대사건이었던 소값 파동에 농민들이 목숨을 끊고 자살까지 하였었다. 이내 또 소값 부양책으로 국내에서 가임암소를 수매 도살 또다시 소의 품귀 현상등의 악순환, 이러 저러한 상황속에서 급기야는 UR협상이 타결되고 WTO 국회인준절차를 끝내고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는 동안 세계 어느나라 농민보다도 불리한 여건에서 개방화에 접하였다.

과거 일관성 없는 축산정책 아래서 피해 농민들이 협회에 모여 나름대로의 힘을 결집하여 실력행사로 항의하고 외쳤던 농민데모가 수없이 행사되었었다.

그러나 별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고 정책당국은 그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이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잘못된 정책을 끝내 합리화 하려는 행정으로 우리 농민들만 피해를 보았던 악몽 같은 기억이 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협회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정책당국이나 관계요로나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밖으로 우리 축산업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호소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운동에 무임승차 하는 사람이 없도록 회원확장에 주력하고 빈틈없는 단결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발전적인 정책 건의를 해야하겠다.

우리나라 축산업중에 낙농업은 역사이래 지속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보호산업으로 발전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일찌기 후진성을 떨추지 못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똑같이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우리나라 한우의 사육기반은 열악한 현실이며 생산자단체참여도 관심밖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한심스러운 생각도 하게된다.

낙농, 육우 다 같이 참여하여 자조금제도를 활성화하여 활발하게 단체활동이 전개되어 서양기술의 혁신과 시장정보 교환 유통의 체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때다.

또한 축산기반 확충에도 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하여 자급하는 우리나라 "소 산업"의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살려야 한다.

농후사료, 조사료를 일체 외국산 수입에 의존하여 축산을 경영한다면 이 나라 축산인의 자존심도 문제려니와 "소 산업"의 축산의 명분이 상실된다.

축산인답게 양질 조사료를 생산하여 자급하는 자존심과 명분을 1995년 새해부터는 기필코 세워야 할 것이다.

다사다난 했던 1994년을 보내며 맞이하는 새해 1995년은 우리나라 축산발전의 대망의 해로 희망차게 맞이하자.